



2017 기증자료 특별전(3차)

# 의로운 투사들

Righteous Fighters



독립기념관

## 관람안내

관람시간 하절기(3-10월) 09:30~18:00  
동절기(11-2월) 09:30~17:00  
관람료 무료  
문의전화 041) 560-0114  
홈페이지 [www.i815.or.kr](http://www.i815.or.kr)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 기증자료 특별전을 개최하며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은 국내외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 하에 전개된 이러한 독립운동은 개인의 명예나 권력을 내려놓고 '독립'이라는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자기희생적인 행위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일제 식민통치의 심장부에 뛰어들어 그것을 파괴하고자 한 '의열투쟁'은 극단의 자기희생적 용기를 보여주는 독립운동의 전형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삶을 내던졌던 이들 투사들의 정신적 계보는 '의'를 부르짖으며 목숨을 끊었던 여러 열사들의 순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 3차 기증자료 특별전에서는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까지 여러 투사들의 삶과 그것에 대한 기념작업을 살펴봄으로써 의열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려 합니다. 정의보다는 이익이, 사회보다는 개인이 더 우선시되는 이 시대에 '의로운 투사들'의 뜨거운 정신이 전달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기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Opening of the Special Exhibition of Donated Materials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was carried out in diverse way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se independence movements involved many acts of self-sacrifice for the great cause of independence. This 'heroic struggle', which was aimed at destroying the heart of Japanese colonial rule with one's own life, was an archetypal form of independence movement requiring an extreme degree of selfless courage. The spiritual genealogy of such fighters starts with the patriots who laid down their life for the country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e third special exhibition of donated materials aims to commemorate the history of the heroic struggle.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will convey the passionate spirit of these 'righteous fighters'.

To conclude, we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eople who have donated their invaluable materials to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전시기간

10. 31.(화) - 12. 10.(일)  
특별기획전시실 | (제7관)



## 기울어가는 나라에서

‘의열투쟁’이란 자신을 희생하면서, 침략정책을 앞장서 추진했던 일본인 또는 친일파를 처단하거나 일제의 식민기구를 파괴했던 독립운동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의사’란 성패에 관계없이 목숨을 내걸고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한 사람을 말하고, ‘열사’란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자결 및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칭한다.

을사늑약 직전 일제에 항거하여 자결한 주영 한국공사 이한응의 순국을 시작으로, 많은 의사와 열사들이 의열투쟁을 전개했으며 또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멀리 미국에서는 1908년 장인환과 전명운이 대한제국 외교고문이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처단하는 의거를 거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술국치로 국권을 잃게 되었고, 대한제국의 전현직 관료 및 재야 유생들은 순국으로써 일제 강점에 저항하였다.

### Weakening of the country

‘Heroic struggle’ means the fight or struggle waged by patriotic martyrs to liberate their country. In general, there are two Korean words for patriotic martyrs, ‘uisa’ and ‘yeolsa’: uisa refers to a person who attacks an enemy at the risk of his or her life and is indeed sacrificed, while yeolsa refers to a person who shows great determination by taking his or her own life in an act of an emphatic protest against the enemy. Following the suicide of Yi Han-eung, Korean ambassador to Great Britain, many patriotic martyrs died a brave death in their defense of national sovereignty. However, in 1910, the Korea-Japan Treaty of 1910 was signed, leading to the loss of Korea’s national sovereignty, after which government officials of the Korean Empire and Confucian scholars sacrificed their life as a protes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전명운 친필 주소록 수첩  
Jeon Myeong-un's address book  
7.4×11.3 | 전명운기념사업회 기증



장인환 회중시계  
Jang In-hwan's pocket Watch  
4.2×5.4 | 장일 기증

정재건 순국 시 사용한 절의검  
The knife used by Jeong Jae-geon  
to commit suicide  
10.1×1.9 | 정중원 기증



##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1919년 3·1운동을 통해 민족독립의 열망과 의지를 전세계에 선양하였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희생자의 수가 컸으며 탄압방식 또한 매우 잔인하였다. 비폭력시위 운동의 한계를 절감한 독립운동가들은 무장투쟁에 주력하여 독립군 부대 및 무장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였다. 이제 구한말 의분자결과 같은 소극적 형태의 투쟁을 넘어 일제와의 정면대결을 지향하는 공격적인 의열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신홍무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열단이 있다. 이들은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함’,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해 희생함’ 등 공약 10조를 정하고, 조선총독부 및 경찰서를 비롯한 일제통치기구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여러 의거를 계획·실행하였다.

### People who gave their lives for Korean Independence

Although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promoted Koreans’ desire and determination to achieve national independence to the whole world, the cruel oppression of the Japanese led to a large number of victims. Independence activists who felt keenly the limitations of non-violent protest concentrated on armed struggle, and formed an armed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 Thus, an aggressive patriotic struggle aimed at direct confrontation with Japanese imperialism was waged full-scale, moving beyond the passive forms of resistance such as the suicides committed out of righteous indignatio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김석 일영사전  
Kim Suk's dictionary  
1933년 | 7.7×15.4 | 홍복자 기증



의열단원 사진  
Photo of members of Euiyeoldan  
(the Heroic Corps)  
15.5×11.3 | 신백우 기증



서대문형무소 옥사 마루판  
Floorboard of the cell at Seodaemun Prison  
112.1×22.1 | 서대문형무소 기증

## ‘의열’을 기억하라

광복 직전까지도 일제를 향한 의열투쟁은 계속되었다. 1945년 7월의 대한애국청년단 부민관 의거의 경우, 친일 어용대회가 열리는 부민관을 폭파하여 독립운동의 끈질긴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후 광복을 맞이하여 조국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들은 의열투쟁으로 순국한 동료들을 추모하기 위해 여러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 1946년 6월,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삼의사三義士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어 같은 해 7월 효창공원에 안장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도 의열투쟁은 공식적인 기념사업을 통해 혹은 영화·연극·출판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다.

### Remember the noble souls of our patriots

The heroic struggle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was continued until Korea gained its independence. When Korea was finally liberated from Japan, the independence activists who returned to the country carried out projects to commemorate the compatriots who had sacrificed their lives for the country. Among these, the representative project consisted in returning the remains of three patriots - Yun Bong-gil, Lee Bong-chang, and Baek Jeong-gi - to Korea in June 1946 and burying them in Hyochang Park in July of that year. Since then, the heroic struggle has been remembered in diverse ways including official commemoration projects, cinematic and theatrical productions, publications, and other media.



이강의 안중근 애도사  
Lee Gang's condolatory address for An Jung-geun  
1954년 | 애도사) 125×18.5 / 봉투) 8×21.7 | 이숙 기증



「김상옥열사의 항일투쟁실기」  
Anti-Japanese Struggle by Kim Sang-ok  
1949년 | 12.5×18.5 | 김태운 기증

전명운田明雲  
(1884~1947)

1903년 하와이 이민  
1905년 미주 항일운동단체 공립협회 참여  
1908년 스티븐스 처단 의거, 무죄 석방  
1909년 연해주 피신 후 샌프란시스코로 재이주

장인환張仁煥  
(1876~1930)

1904년 하와이 이민  
1906년 샌프란시스코 이주, 대동보국회 활동  
1908년 스티븐스 처단 의거, 25년형 선고  
1919년 동포들의 청원운동으로 가석방

정재건鄭在健  
(1843~1910)

1888년 문과 급제  
1892년 부사과副司果, 전직典職 등 역임  
1894년 사직 후 향교醴醕 반대운동  
1910년 경술국치 후 자결순국

장태수張泰秀  
(1841~1910)

1861년 문과 급제 후 병조참의 등 역임  
1895년 단발령 이후 사직하고 은거  
1904년 관직 복귀하여 시종원부경 등 역임  
1910년 경술국치 후 단식순국

강우규姜宇奎  
(1855~1920)

1911년 복간도 이주  
1919년 대한국민노인동맹단 가입  
1919년 사이토총독 폭살 의거  
1920년 5월 사형 확정, 11월 순국

신철휴申誌休  
(1898~1980)

1919년 신홍무관학교 졸업  
1919년 의열단 창립단원  
1920년 거사 계획 중 검거, 7년형 선고  
1927년 신간회 참여

김석金晷  
(1910~1983)

1932년 상하이한인청년당 조직  
1932년 윤봉길의거 관련자로 일경에 체포  
1932년 병인용담대 가담  
1945년 건국준비위원회 광주청년대장

이강훈李康勳  
(1903~2003)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  
1930년 남화한인청년연맹 가담  
1933년 주중일본공사 아리요시 처단 의거  
1945년 광복 후 출옥, 재일한국거류민단 부단장

안중근安重根  
(1879~1910)

1897년 천주교 입교  
1908년 대한의군참모총장  
1909년 비밀결사 동의단지회同盟斷指會 결성  
1909년 하얼빈 의거(이토 히로부미 처단)

윤봉길尹奉吉  
(1908~1932)

1927년 『농민독본』 저술 등 농촌운동  
1930년 중국 망명  
1932년 상하이 홍커우공원 의거  
1932년 가나자와에서 총살형으로 순국

김상옥金相玉  
(1889~1923)

1912년 영덕철물점 개업  
1919년 비밀결사 혁신단 조직, 지하신문 발행  
1920년 상하이 망명 후 의열단 참여  
1923년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의거